



## AIG의 부실 원인과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이민환 연구위원, 최영목 부연구위원, 이경희 전문연구위원

미국 AIG의 구제금융 신청을 계기로 AIG의 부실 원인 및 여타 보험지주회사의 경영위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IG 경영악화는 주력인 보험영업 부문이 아니라 금융사업부에서 거래한 신용파생상품의 손실이 급증한 데 기인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메트라이프, ING 등 세계 유수의 보험지주회사의 재무제표를 비교하여 AIG와 같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AIG와 같은 유형의 재무상황 악화가 나타날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추가적인 거대 보험지주회사의 위기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현재 미정부는 AIG에 대한 구제금융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빠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조기에 자산을 매각하여 정상화를 추구하는 작업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다. 한편, AIG의 부실이 국내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급여력비율뿐만 아니라 공적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어 해약 쇄도(insurance run) 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다만, AIG와 같은 다국적 비은행금융기관의 파산에 대비하여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다.

### I. 서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금융기관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베어스턴스의 부실,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등 투자은행 부실의 여파가 여타 금융업으로 전이되어 마침내는 FRB가 세계 최대의 보험복합금융그룹인 AIG에 대



해 구제금융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AIG는 투자은행과 달리 130여개국에 걸친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존재하여 AIG가 파산처리된다면 전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이다. 이는 결국 미행정부가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S&L)위기의 교훈으로 대마불사(Too Big To Fail)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무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금번 AIG 사태의 발생원인을 살펴보고 여타 보험지주회사의 부실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해보고, AIG 사태가 국내외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AIG에 대한 FRB의 구제금융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AIG의 현황과 역사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후, AIG가 경영위기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AIG와 여타 보험지주회사의 경영형태를 비교함으로써 타보험사의 경영위기 발생가능성을 점검해보고 끝으로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 II. AIG의 개요 및 구제금융 내용

AIG는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C.V.Starr에 의해 설립되었다. Starr는 손해보험의 대리점인 AAU(American Asiatic Underwriters)를 설립한 후 여타 서구보험사들이 기피했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생명보험사업을 전개하면서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이후 영업범위를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및 라틴아메리카 등으로 확대하면서 급성장하였다. 이러한 AIG는 1960년대 후반 커다란 계기를 맞게 되는데, 1967년 지주회사인 AIG, Inc.를 설립하고 제2대 사장으로 M.R.Greenberg가 취임하고, 1969년에는 주식공개를 단행하였다. Greenberg는 손해보험영업의 수완을 인정받아 Starr에 의해 스카우트된 이후 American Home Assurance Company의 경영위기를 극복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룹의 CEO로 취임하였다. Greenberg는 1970~1980년대 본업인 보험분야에서 특수위험분야의 보험상품 개발을 통해 타사와의 격차를 벌이는 한편, 전세계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주력하였다.

1984년 Greenberg는 주식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항공기 리스업, 파생상품거래, 연금 및 자산운용 등 손해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40년 가까이 AIG를 이끌어왔던 Greenberg도 2005년 발생한 회계부정사건<sup>1)</sup>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M.J.Sullivan이 CEO로

1) AIG가 General Re사와의 재보험계약을 통해 재무현황을 조작한 혐의로 당시 경영진들의 유죄가 구형된 사건



취임하였다. 그러나 Sullivan은 2007년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투자 손실이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08년 6월 사임하였다. 이후 이사회 의장이었던 R. Willunstad가 CEO에 취임하여 경영정상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결국 FRB의 구제금융이 실시되고 부실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임하기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FRB가 보험회사인 AIG에 대해 실시한 구제금융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FRB이사회는 재무부의 동의를 얻어 경영위기에 처한 AIG에 대해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 제13조 3항<sup>2)</sup>에 의거 AIG에 대해 최대 850억 달러의 용자를 승인하는 한편, AIG와 그 자회사의 모든 자산과 주식을 담보로 설정하고 AIG는 자산매각을 통해 용자금을 상환토록 하였다. 이는 베어스턴스 파산시 이를 인수한 JP모건에 대해 베어스턴스의 자산을 담보로 300억 달러를 용자한 것과는 달리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을 담보로 직접적인 용자를 실시하였다. 또한 미행정부는 AIG 전체주식의 79.9%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한 배당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을 추가하였다.<sup>3)</sup>

그러나 실제 계약에 있어서는 신주인수권(warrant)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 등 기존주주의 권한을 정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FRB가 보다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4)</sup> 또한 FRB가 제시한 3m Libor + 850bp의 대출조건은 여타 대출조건에 비해 상당히 엄격한 조건이며 9월16일 기준 Libor가 2.88%임을 감안하면 연11.38%에 달한다.<sup>5)</sup> 이는 9월16일 기준 정크본드 스프레드 905bp에 근접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정크본드로 인식되는 BBB-(10.49%)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FRB가 구제금융을 실시하면서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한 것은 AIG에 대해 높은 이자를 부담시킴으로써 자산의 조기매각을 유도하여 AIG 사태를 신속히 해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FRB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AIG가 채무불이행에 직면하게 되면 FRB는 취득한 79.9%의 주식과 일반보유분 20.1%를 완전 감자하여 국유화하고 순자산부족분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후 자산부채이전방식 등을 통해 민간에 매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을 말함

- 2)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FRB이사회는 5인 이상의 찬성투표로 개인, 파트너십, 법인에 대해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대출을 실시할 수 있음
- 3) 79.9% 인수의 의미는 연방회계기준에 따라 79.9%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연방정부의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여야 하며 해당기업 파산시 연방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임
- 4) 이러한 FRB의 구제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기존 AIG주주들은 주주가치 희석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임
- 5) 베어스턴스 파산시 제시된 유사 RTC의 대출금리가 10년간 연2.5%이었음



### Ⅲ. AIG의 재무상태 악화 원인

금번 AIG의 대규모 손실 및 자본부족 사태는 전통적인 보험업무 부문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파생금융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투자은행업무 부문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투자은행업무를 수행하는 미국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와 유로지역 금융기관들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차입하여 수익성이 높은 모기지대출이나 유동화증권과 같은 파생상품에 투자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은 자기자본이 고정된 상태에서 부채와 자산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즉, 부채 측면에서는 레버리지가 크게 증가하고 자본측면에서는 자기자본이 크게 감소함으로써 리스크 익스포저가 매우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모기지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한 금융기관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기 시작했다. 부채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보유한 자산가치가 크게 감소하여 결국에는 자기자본의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사태가 이와 같이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투자은행에 자금을 제공했던 금융기관들의 환매나 상환요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투자은행업무를 수행한 금융기관 및 이와 관련이 있는 금융기관들은 단기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파산위기에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지난 9월 15일에 리먼브라더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했으며 메릴린치가 BOA에 의해 총 500억 달러에 인수되었다. AIG의 경우에도 AIGFP<sup>6)</sup>에서 이미 지난 2007년 4분기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된 손실이 5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IG가 위기에 처하게 된 보다 결정적인 원인은 AIGFP의 과도한 CDS 계약과 관련이 크다.

AIGFP는 모기지 관련 채권을 보유한 은행 및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현재 약 4,410억 달러에 달하는 CDS를 매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IGFP로부터 CDS를 매입한 투자자들은 AIGFP에게 주기적으로 기초자산에 대해 Libor+ $\alpha$ 만큼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AIG는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시에 약정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그런데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신용경

6) AIGFP(American International Group-Financial Products)는 AIG가 100% 투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서 금융 시장에서 투자은행과 같이 파생금융상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임



색과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파산위험이 증가하면서 2007년 4분기부터 2008년 2분기까지 AIGFP의 CDS 손실이 약 18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1> AIG의 사업부분별 영업손익(세전) 및 당기순이익

(단위: 백만달러)

	2005	2006	2007	2008 1/4	2008 2/4
손해보험	1,981	10,353	10,632	1,610	1,390
생명보험·퇴직서비스	9,124	10,033	10,584	2,237	2,374
금융서비스	4,270	517	-8,772	-8,621	-5,920
항공리스, ILFC	713	639	900	272	352
AIGFP	647	949	-10,125	-8,851	-6,244
소비자금융, AGF	876	761	205	24	-22
기타	54	-11	37	10	34
FAS 133 조정	1,980	-1,822	211	76	-40
자산운용	2,192	2,257	2,899	154	150
당기순이익	10,478	14,049	6,200	-7,820	-5,357

주: 세전영업이익은 일시적 감액상각과 실현자본이익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CREDIT SUISSE, 「Equity Research: AIG」, 25 August 2008.

이에 따라 AIGFP의 세전영업이익은 2008년 1분기에 약 88억 달러의 적자, 2분기에 약 6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또한 AIG 전체의 당기순이익이 2007년에 약 62억 달러였으나 2008년 1분기에는 약 78억 달러의 적자로 돌아섰고, 2분기에도 약 5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특히, 올해 9월 들어서는 AIG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AIG의 유동성 위기가 보다 심화되었다. AIG가 판매한 CDS에는 AIG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락하면 CDS 매입자에게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옵션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매입자들이 옵션을 행사할 경우 약 130억 달러의 자금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 IV. 여타 보험지주회사와의 비교

여기서는 AIG와 마찬가지로 보험 중심의 지주회사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지주회사의 재무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AIG와 비교하고자 한다.



## 1. 메트라이프

미국 메트라이프는 1863년에 상호회사(mutual company) 형태로 설립되었으며, 2000년에 공개(public)되었다. 메트라이프는 생명보험을 모체로 영업을 시작하여 점차 손해보험, 소매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지주회사로 성장하였다.

<표 2> 메트라이프의 연결 손익(세전)

(단위: 백만 달러)

	2분기		상반기	
	2007	2008	2007	2008
기업	521	448	973	1,006
개인	449	323	768	635
자동차 및 주택	108	52	214	150
해외	117	147	241	284
재보험	38	53	74	82
기타	78	-81	123	-104

자료: Quarterly Financial Supplement

동사의 2008년 상반기 이익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지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금융위기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았다. 2008년 2분기에 해외부문과 재보험 부문에서는 전년 동기에 비해 이익 규모가 증가하였다. 반면, 주택시장 붕괴 및 신용경색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기업부문, 개인부문, 자동차 및 주택부문에서는 이익 규모가 감소하였다. 주식시장 침체, 주택경기 급락 등으로 인해 미국 내 영업환경이 크게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그룹의 펀더멘털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미국 푸르덴셜

미국 푸르덴셜은 1875년에 상호회사 형태로 설립되었으며, 2001년에 이르러서야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 푸르덴셜 금융서비스 그룹(Prudential Financial, Inc.)은 국내보험, 국내투자, 해외보험 및 해외투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사는 생명보험 위주의 금융지주회사로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로 인한



재무상태의 악화는 미미한 수준이다. 2008년 상반기에도 국내보험, 국내투자, 해외보험 및 투자부문에서 모두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이익을 시현하였다. 특히 보험 부문은 주로 생명보험 및 퇴직연금 중심이어서 모기지 보증과 관련된 손실도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표 3> 미국 푸르덴셜의 연결 손익(세전)

(단위: 백만 달러)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상반기
국 내 보 험	788	991	1,227	1,359	1,609	638
국 내 투 자	289	355	707	1,129	1,391	641
해외보험및투자	809	994	1,416	1,566	1,747	918
기 업 및 기 타	84	176	188	47	-50	-40
조 정	-357	-146	254	-110	-301	-
유배당(폐쇄계정)	370	915	482	403	290	-

자료: Data monitor Quarterly Financial Supplement

### 3. ING

ING는 1991년 보험회사인 Nationale-Nederlanden과 은행인 NMB Postbank Group이 합병하여 탄생하였다.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보험업 및 은행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그룹으로서 이번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비교적 큰 손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장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2008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보험과 은행 부문 모두에서 이익 규모가 감소하였다. 보험 부문의 경우 유럽, 미주 지역과 기업성보험의 이익 규모가 축소되었다. ING는 2008년 2분기에 서브프라임, Alt-A<sup>7)</sup>, 주거용모기지(RMBS: residential mortgage-backed securities) 관련 투자에서 6천만 유로(세전)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런 규모의 손실은 ING의 자산 및 이익 규모를 감안할 경우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

7)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프라임(prime), 알트에이(Alt-A), 서브프라임(sub prime)의 3단계로 구분됨



<표 4> ING의 연결 손익(세전)

(단위: 백만 유로)

	2005	2006	2007	2007년 상반기	2008년 상반기
<b>보 험</b>	<b>3,975</b>	<b>4,807</b>	<b>6,110</b>	<b>3,006</b>	<b>1,866</b>
유럽	2,021	2,249	1,840	1,120	736
미주	1,979	1,992	2,059	1,126	691
아시아/태평양	447	621	576	312	306
기업성 보험	-472	-55	1,635	447	133
<b>은 행</b>	<b>4,554</b>	<b>5,052</b>	<b>4,967</b>	<b>2,713</b>	<b>2,506</b>
도매업무	2,299	2,525	2,399	1,268	935
소매업무	1,815	1,935	2,062	1,229	1,196
인터넷 은행	617	694	530	336	333
기업업무	-177	-102	-27	-121	41
<b>합 계</b>	<b>8,529</b>	<b>9,859</b>	<b>11,077</b>	<b>5,719</b>	<b>4,372</b>

자료 : 연간 및 반기 보고서

#### 4. 알리안츠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둔 알리안츠는 1890년에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생명보험, 은행, 자산관리사업 부문으로 확대되어 금융지주회사로 성장하였다. 특히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위해 드레스드너 은행(Dresdener Bank)을 전격 인수하였다.

손해보험 부문에서는 2008년 상반기에도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의 수익을 달성하였으나, 생명보험 부문에서는 이익 규모가 소폭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은행 부문은 2008년 상반기에만 자산담보부채권(ABS) 투자로 인해 약 10억 유로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자회사인 드레스드너 은행은 부채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US RMBS 등의 자산ABS 거래와 신용파생거래에서 2008년 1분기에는 8억 5천만 유로, 2분기에는 2억 9천만 유로의 대손상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였다. 은행 부문의 손실이 상당 규모에 달하고 알리안츠 그룹 전체의 손익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자, 2008년 8월 31일에 드레스드너 은행을 독일 상업은행인 코메르츠 은행에 매각(98억 유로)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5> 알리안츠의 연결 손익(세전)

(단위: 백만 유로)

	2005	2006	2007	2007 상반기	2008 상반기
손해보험	5,142	6,269	6,299	3,161	3,162
생명보험	2,094	2,565	2,995	1,508	1,292
은행	704	1,422	773	1,148	-1,024
자산관리	1,132	1,290	1,359	637	522

자료 : 연간 및 반기 보고서

## 5. 여타 보험지주회사의 부실가능성 검토

AIG가 모기지 관련 투자와 스왑 익스포저에 대한 평가손실로 인해 자본조달과 유동성 측면에서 큰 위기를 겪고 있으며, 알리안츠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손실이 발생한 은행 자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달리 여타의 대형 보험지주회사 재무현황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IG, 메트라이프, 푸르덴셜은 보험업을 주력으로 하는 미국의 보험금융그룹이란 공통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의 결과가 상당히 달리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업무의 다각화 범위, 그룹의 내부통제시스템 등 경영스타일의 차이에 기인한다.

AIG는 1960년대에 상장된 주식회사로서 일찍부터 영업의 핵심을 가계성보험(personal insurance)에서 높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성보험(commercial insurance)으로 옮겨 왔다. 또한 AIG의 다각화 전략은 금융업 뿐만 아니라 비금융업까지 망라하고 있는데, 비금융업의 영역도 항공기 리스업에서부터 공항 운영, 통신회사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다. 금융업에 있어서도 손해보험, 생명보험, 금융서비스(파생금융상품), 자산운용(프라이빗 बैं킹, 브로커) 등 거의 모든 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영국, 호주, 중국, 인도, 남미 등 전세계 130여개국에 진출하였다.

AIG는 이번 신용위기 이전에도 내부통제시스템의 미비와 리스크관리의 취약성을 드러낸 경험이 있다. 2001년 AIGFP는 PNC Financial Services Group과 'non-traditional insurance' 또는 'income smoothing' 상품을 거래함으로써 PNC의 이익을 과대계상 하도록 만들었다. 거래당사자들은 이런 상품을 보험으로 회계처리 하였지만, 감독당국에서는 실질적인 리스크전가 기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그 결과 감독당국은 AIG에게 8천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처럼 AIG가 타 보험사에 비해 리스크인수에 적극적인 이유는 일찍 주식 회사로 전환되어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문화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영진은 높은 주주의 요구수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분야의 영업을 단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시스템 미비로 인해 신용위기를 겪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메트라이프와 푸르덴셜은 오랫동안 상호회사로서 영위되어 왔으며, 1990년대말 자본조달을 위해 탈상호화(demutualization)를 단행하여 각각 2000년과 2001년에야 주식회사로 전환·상장되었다. 이들은 철저히 보험 특히 생명보험 위주로 금융지주회사를 형성하고 있으며, 겸업화를 위한 업무영역도 AIG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다. 주로 개인 보험계약자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업무, 예금 업무, 퇴직연금을 매개로 한 자산운용서비스 등에 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높은 위험은 회피하는 보수적 전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AIG와 차별적이다. 또한 유럽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찍부터 유니버설뱅크가 활성화되어 있어 전략적 제휴나 합병 등을 통해 업무범위를 확장하는 경우가 많아 신규업무 진출에 대한 위험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지 않은 원인으로 판단된다.

## V. 시사점

AIG 사태는 보험사가 본연의 업무 이외의 분야에 대해 무리한 사업확장을 통해 과다하게 리스크를 인수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며, 이와 더불어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내부통제시스템과 감독당국의 감독실패가 간접적인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금융위기에 영향을 적게 받은 여타 보험지주회사의 예를 거울삼아 향후 국내 보험사의 경우도 업무다각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보험 본연의 업무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서서히 경험을 축적시키면서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AIG의 유동성 위기가 알려지면서 계약자들의 심리적 불안 등으로 초래되었던 해약사태는<sup>8)</sup> FRB가 구제금융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급격히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로 범위를 한정해서 보면 AIG 사태가 국내지점의 경영악화가 아닌 본점의 경영악화에 의해 발생한 만큼 AIG 한국지점의 지급여력비율 등을 고려하면 향후 국내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8)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시아국가와 국내지점에 있어서 보험해약이 평소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것으로 보인다. 즉 AIG가 파산에 이를 경우에도 국내지점의 보험계약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예금자보호제도 및 책임준비금의 국내보유의 무 등 예방조치가 마련되어 있고<sup>9)</sup> 실제 보험사가 청산된 경우가 없는 만큼 보험계약자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같이 금융위기를 경험하지 못한 국가의 감독당국은 금융거래자들의 해약쇄도(insurance run) 등 심리적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보호 및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적자금에 의한 보험계약자보호를 없애고 전적으로 업계의 부담에 의해 운영할 계획이었던 일본은 현재의 공적자금과 업계부담에 의해 유지되는 형태로 보험계약자보호기구(생명보험)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AIG 사태를 경험삼아 각국에서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규제·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공적예금보험제도에 의해 보험계약자가 보호되고 있어 여타 국가와 같은 공적개입의 확대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IG와 같이 다국적 금융기관이 파산에 처한 경우에 대비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리과정에 있어서 자산부채의 처분에 관해 본점소재지 법원 및 감독당국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법과 본점소재지의 관련법이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9) 보험업법 제75조에서는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을 국내에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